2026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2기 졸업연수 결과보고

2026. 10. 14.(수) ~ 17.(토)

일본(북해도)

1 연수개요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2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6. 10. 14.(수) ~ 17.(토) / 일본 북해도

□ 참석인원 : 제22기 교육생(13명), 중앙회(최*웅 대리)등 14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 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가업승계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 세부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 내용
10.14.(수)	인천	삿포로	ㅇ 인천공항 출발(10:35) ㅇ 치토세 국제공항 도착(13:25) ㅇ 현장답사(모아이 석상, 스톤헨지) ㅇ 만찬 및 네트워킹
10.15.(목)	삿포로	삿포로	ㅇ 승계기업 탐방(와코 호쿠세이 메탈 주식회사 이시카리 공장) - 기업 소개(카와다 요시노리 부장) - 양국 승계기업인의 고민 등 공유 ㅇ 간담회(북해도중소기업인동우회) - 일본의 기업승계 현황 소개 - 2세 경영인으로서의 자세 등 공유
10.16.(금)	삿포로	오타루	ㅇ 현장 견학(닛카 위스키 증류소) ㅇ 문화 탐방(오타루 등) ㅇ 22기 교육생 교류회
10.17.(토)	삿포로	인천	ㅇ 문화 탐방(삿포로) ㅇ 치토세 국제공항 출발(16:20) ㅇ 인천공항 도착(19:30)

2 참석자명단

NO.	성명	소속	직위
1	김*성	금정이앤시㈜	대리
2	김*영	태성전기산업㈜	부사장
3	김*철	동해렌즈	팀장
4	김*원	그린레이져	팀장
5	박*연	(주)유니스틸	과장
6	박*현	삼호건설㈜	대표이사
7	박*지	브릭스건설	과장
8	신*민	㈜델리에프에스	부장
9	여*인	경동산업㈜	과장
10	이*영	신영로파마	차장
11	정*철	재덕종합건설	부장
12	지*환	동양전자산업㈜	대표이사
13	최*석	주식회사 세화이엘씨	이사
14	최*웅	중소기업중앙회	대리

3 세부 연수내용

일자	세부 출장 내용
10.14.(수) (1일차)	ㅇ **출국 및 이동 : 인천국제공항 → 치토세 공항 → 삿포로** ㅇ **현장답사(모아이 석상, 스톤헨지)** ㅇ **일본 기관 방문 전 사전 준비** - 3박4일 일정 브리핑 - 와코 호쿠세이 메탈 주식회사 및 북해도중소기업가동우회 기보우호우의 개요 및 특징 등 사전 공유
10.15.(목) (2일차)	ㅇ **기업승계 기업 탐방(와코 호쿠세이 메탈 주식회사)** - 양 기관 소개 (중앙회-이시카리 공장) - 양국 승계예정자의 애로사항 공유 ㅇ **중소기업 관련단체 방문(북해도중소기업가동우회)** - 양 기관 소개 (중소기업중앙회-기보우호우) - 양국 승계기업인의 고민 공유 · 승계 관련 애로사항, 준비 포인트 등 공유 · 승계인으로서의 리더십, 비전 등 공유 · 양국 질의응답 및 승계 노하우 등 공유
10.16.(금) (3일차)	ㅇ **현장 견학(닛카 위스키 증류소)** ㅇ **문화 탐방(오타루 운하, 오르골당 등)** ㅇ **22기 교육생 간담회(네트워킹 및 교육만족도 피드백)** - (만족한 점) 해외연수 프로그램, 숙소, 교통 및 식사 등 - (보완할 점) 양국 간담시간 증대, 만찬 횟수 추가 등
10.17.(토) (4일차)	ㅇ **문화탐방** (삿포로 시내 탐방) ㅇ **귀국 : 치토세 → 인천국제공항**

4 답사 세부 내용

□ 와코 호쿠세이 메탈 주식회사 이시카리 공장
(발표자 : 카와다 요시노리 총괄부장)

ㅇ 기업 소개

- 1977년 창업, 건축제작 금속부품, 강재 건구 등 금속 가공에 특화하여 건물에 맞춘 검토, 설계, 제작, 시공까지 전부 관리
- (~1990) 강철 목공 작업 위주 사업 / 종업원수 8명
- (~2000) 은행 등 관공서 대상 사업 / 종업원수 10명
- (~2010) 금속 공사 위주의 사업 / 종업원수 6명
- (~2020) 북해도 외 지역으로 영업 확대 / 종업원수 7명
- (2020~) 방수판·방수문 등 재해대비 제품 집중 / 종업원수 3명

ㅇ 기업 이념

- 금속 가공을 통해 SOZO로 사회의 안전과 만족에 공헌한다.
- 고객 **창조(想像, SOZO)**를 제품으로 **창조(創造, SOZO)**하기 위해 직원과 고객 모든 사람에게 **상조(相造, SOZO)**한다.

ㅇ 승계 기업인으로서의 애로사항, 중요점 공유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연스럽게 부친의 사업에서 제조 기술을 배움. 현재 차남으로 이시카리 공장장을 맡고 있고, 장남은 북해도 이외 지역 총괄 영업을 담당하고 있음.
- 일할 청년들이 부족하여 공장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임. 인도네시아 단기 근로자들이 있으나, 장기근속을 원하는 청년 직원이 필요함.
- B2B 대상 맞춤형 주문제작 방식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직원 운용의 어려움을 혼자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북해도중소기업가동우회 기보우호우[起望峰] 소개

ㅇ 약 47,000개사가 가입되어 있는 경영자 단체

ㅇ 후계자만의 고민을 공유하고, 경영자 취임전 학습 장소 및 네트워킹을 위해 1969년 설립

- 자주, 민주, 연대 등의 정신을 강조하는 단체

ㅇ 북해도 내 여러 지역(지부)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를 조정하는 본부/이사회가 위치함.

- “청년부(45세 미만 경영자)”, “여성부” 등 다양한 분과 존재
- 북해도 중소기업가 동우회 기보우호우 삿포로시부는 1986년 설립되어 현재 약 1,900명의 회원이 가입.

ㅇ 기보우호우[起望峰]의 슬로건

- “후계자만의 고민과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할 수 있다. 배움의 장소를 구축한다.”
- “사업 승계를 체계적으로 배운다.”
-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기보우호우가 후계자 양성의 핵심을 맡아 배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간다.”

□ 사전질문서에 대한 답변 및 경험 공유(동우회)

ㅇ 승계가 완료된 대표자의 연설(스토키 야스나리 ㈜스토키 대표이사)

- 사원부터 시작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실력을 인정 받아, 임직원의 반대 없이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침.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의 압박감이 있으나, 기업 운영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함.

ㅇ 후계자로서 부딪히는 가장 큰 과제에 대한 토론

- 자사주나 부동산 등의 자산 승계, 직원 및 거래처와의 관계 구축이 모든 후계자들의 공통된 고민 사항
- 사장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

참 고 주요 질의응답

□ 와코 호쿠세이 메탈 주식회사 이시카리 공장

질문	답변
(일본측) 한국측 승계지원 사업이 있는지	ㅇ중앙회 내 사업 (승계 자문 컨설팅) 소개 ㅇ기업승계 관련 사례 및 차세대CEO스쿨 프로그램 소개
(한국측) 계승에 대한 일본 대중(국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ㅇ일본도 과거에는 친족 승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사위, 평사원 등)이 승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양국) 최근 AI 기술 도입과 관련한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ㅇ(일본)현재 당사 기술 측면에 AI를 도입할 부분은 없으나, 기획 설계 분야에서 앞으로 AI 도입의 가능성은 있음. ㅇ(한국)전사적으로 매월 AI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보안 등의 분야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북해도중소기업인동우회 기보우호우

질문	답변
승계 과정에서 기존 직원이나 경영진의 반대는 없었는가?	ㅇ 주변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 외적으로 시행착오도 겪고, 고민을 많이함. 지금은 노하우를 만들어 직원들과의 신뢰도 높아, 기업 내부에 승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ㅇ 반대만 받았음.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해져 본인 의견을 받아들이고 승계를 진행함. 업무 측면에서 회사 구성원들이 본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략이라고 생각함. ㅇ 반대는 없었음.
승계과정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바꾸지 않았다(지켜온 것)'와 '이것만큼은 반드시 혁신했다(바꾼 것)이 무엇인가?	ㅇ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자세'는 바꾸지 않고, 회사 기본 프로세스를 '직원 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업무를 재검토함. ㅇ '개선할 수 있음에도 막연히 그대로 유지해 온' 업무는 모두 바꿈, 예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던 수기 서류를 디지털화함.
청년들의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ㅇ 일본 청년도 중소기업 직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미래의 안정성과 관련된 불안이 큼. - 오히려 청년 외국인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 - 한국과 유사한 고민으로 양국 모두 깊은 공감대가 있음

5 사진자료

















6 보도자료(북해도신문)

事業承継の悩み、日韓の若手経営者が共有　札幌で交流会

宇野沢晋一郎　有料記事

2026年10月16日 17:46

あとで読む

道内企業　フォロー

#道内企業　#経済　#札幌市　#北海道新着



懇談する日韓の次世代経営者





親などからの事業承継を控えている日韓の次世代経営者が会社経営の課題を話し合う交流会が15日、札幌市内で開かれた。北海道を訪れた20～30代中心の11人の韓国の経営者と、北海道中小企業家同友会内の後継者勉強会「起望峰」に所属する経営者5人が参加し、意見を交わした。

札幌を訪れたのは、韓国の起業支援団体、中小企業中央会（KBIZ）の「次世代CEOスクール」に通う経営者たち。「年上で社歴も長い従業員からどのように信頼を得るか」「入社後、何年で親などから事業承継を進める計画か」などの課題に対して、相手国の若手経営者がどのように対処しているか、熱心に耳を傾けた。交流会後、メガネ販売を営むキム・ジュンチョルさんは「事業承継者は違う国でも同じような悩みを持っていたのがとても印象的だった」と振り返った。

（宇野沢晋一郎）